

The Reunified Korea Economy

月刊

統一經濟

1999. 12

통권 제60호

現代經濟研究院

統
一
統
濟

12
1999

제60호

통권 제60호
등록번호 리-6925
등록일자 1994년 12월 2일
발행일자 1999년 12월 10일
발행인 김중웅
편집인 정순원
편집위원 김정근 유병규
김선덕 김희성
박태일 황동언
편집주간 흥순적
제작주간 심재철
편집교열 장은숙
발행처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78
대표전화 (02)724-4114
FAX (02)730-1770
인쇄 서울컴퓨터인쇄사
대표전화 (02)2636-0555

편집자의 글

- 21세기 한반도 평화에 대한 희망 2

포커스

- 20세기를 마감하고 새 천년을 준비하며 • 안충열 3

특집

21세기 한반도 공존 번영의 길, 가능한가?

- 정치: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 강성윤 10

- 경제: 남북한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 김동업 17

- 사회 문화: 평화 공존을 지향하는 새로운 접근 • 이우영 25

경험정보

- 1999년 남북 경협의 평가와 향후 과제 • 유완영 33

논단

- 한국적 개발 전략의 북한 적용 가능성 진단 • 정갑영 42

- 금강산 관광 사업 1주년 평가와 과제 • 정상돈 56

- 남북한 및 중국의 노동 시장과 노동법제 비교 • 정영화 69

북한경제

- 1999년도 북한의 식량 생산 실적 및 수급 전망 • 전형진 83

인물초점

- 독일 통일의 주역들(VII): 학계, 연구계 • 박상봉 98

자료

- 「통일경제」 목차 색인(1999. 1~12) 107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는 무단 전재와 역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필자의 개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21세기 한반도 평화에 대한 희망

2000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20세기가 대립과 갈등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포용과 화합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들 한다. 20세기 말에 실현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이념대립시대가 사라진 것을 염두에 둔 희망적 예언이다. 새 천년의 평화에 대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아직까지 20세기적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다행히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금강산 관광이라는 남북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열렸다. 벌써 유람선을 타고 남북을 왕래한 지가 1년이 넘었다. 이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남북한 경제 협력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는 점도 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북한이 남한의 경제 개발 경험을 살려 경제 회복에 힘쓴다면 새로운 세기에는 한반도에도 공존과 평화의 꽃이 활짝 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뜻에서 금세기 마지막 호 「통일경제」의 특집에서는 '21세기 한반도 공존 번영의 길'이 얼마나 가능한가를 탐진해보았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대결에서 화해 협력의 가능성을 점검해보았고, 경제 측면에서는 민족경제공동체의 실현 조건을 살펴보았으며,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는 평화 공존을 위해 남북한간의 바람직한 접근 자세에 대해서 짚어보았다.

경협정보에서는 "1999년 남북 경협의 평가와 향후 과제"를 통해 1999년 한 해의 남북 관계를 평가해보았다. 이와 함께 "1999년도 북한의 식량 생산 실적과 수급 전망"에서는 북한의 식량 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논단에서는 세 편의 글을 준비하였는데, 우선 60~70년대 남한의 경제 성장 경험을 통한 북한 경제의 재건 전략을 모색해보았다. 이 글에서는 과연 북한이 남한의 경제 개발 전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두번째는 "금강산 관광 사업 1주년 평가와 과제"이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금강산 관광이 더욱 활기차게 추진되기 위한 정책 과제들을 생각해보았다. 마지막은 "남북한 및 중국의 노동 시장과 노동법제 비교" 논문으로 3국간 비교를 통해 향후 남북 경협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북한의 노동 시장 특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인물초점에서는 통독의 주역 시리즈 마지막편으로 킬 세계경제 연구소장 등 통독에 기여한 학계와 연구계 인사들을 소개하였다.

이제 20세기를 마감하는 시점이다. 이번 호에 실린 글들이 20세기 남북 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새 천년을 조망해보는 데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1999년 12월

편집자